

칼럼

건설인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주 승 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유럽 재정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장의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인 사고이다. 정부는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우선, SOC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눈앞의 경제성만을 잣대로 SOC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재정 부담 축소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SOC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SOC 예산 역시 사회 복지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만큼 이는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를 위해 SOC 예산을 줄인다면 정말 낙후된 지역은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SOC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공 임대주택의 확충과 중소형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투자 등 SOC 투자를 통해 주거 복지가 실현되듯이 국민의 복지와 건설산업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SOC 투자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가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중장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주역은 건설인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건설인이 앞장서서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과 선진화를 이끌어주셔야 한다. 위기 앞에 위축되지 말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와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주시길 바란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큰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 발전, SOC 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CERIK